태풍 피해·과잉 생산… 정부, 주요 농산물 수매

다음달 30일까지 벼 매입…사과 3만5000t·배 5000t 가공용 수매
쌀 30kg당 2만원 중간 정산금 지급…가격 확정되면 연말까지 정산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수매를 추진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태풍과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를 본 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세 차례의 태풍으로 1만1748㏊에 달하는 도복 피해를 입었다. 전남 벼 재배면적 15만4000㏊의 7.6%에 해당한다.

전국 벼 도복 피해 면적은 3만197㏊로, 전남이 가장 많았고 전북(6093㏊), 충남(4952㏊), 인천(148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매 물량은 시·도별로 배정되지 않고 농가 희망 물량 전체가 매입 대상이다. 찰벼를 포함해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며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피해 벼 수매 참여할 수 있다. 이전에는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해 1등급 기준가격으로 잠정등외 A는 76.9%, B는 64.1%, C는 51.3% 수준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16일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정조에서 현미가 나오는 중량비인 제현율 등 벼 품위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제현율은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않는 현미의 비율을 말한다.

수매 직후에는 30kg당 2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정산할 방침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 태풍 피해 벼 등급별 가격 수준

〈공공비축 1등 기준·단위:%〉

구 분	가격수준
잠정등외A	76.9
잠정등외B	64.1
잠정등외C	51.3

※등급 상관없이 30kg당 중간 정산금 2만원 지급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사과와 배 4만t에 대한 정부 수매도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산 사과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50만3000t으로 전망됐다. 배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1만t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광주는 35%, 전남 2.2% 증가했고, 배 재배면적은 광주 30.2%, 전남 4.3% 각각 줄었다.

농식품부 측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심리 둔화로 올해 조·중생종 가격하락폭이 컸다"며 "주력시장인 만생종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과·배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생종(후지·신고)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지자체·농협과 함께 시장 출하물량 조절에 나선다.

정부가 수매 지원하는 물량은 사과 3만5000t, 배 5000t이다. 이들 물량은 추석 이후 지자체로부터 접수받은 저품위와 가공용 수매 희망물량이다.

수매 가격에 대해서는 20㎏ 당 정부 2000원, 지자체 3000원 등 총 5000원을 보조한다.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계약 출하물량 약 10만여t을 활용해 시장 공급량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019년도 사과 전체 생산량의 10.1%에 달하는 5만1000t과 배 생산량 전체의 21.4%에 해당하는 4만5000t을 계약 출하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

오늘 전남 농민단체 기자회견

전남지역 농민단체가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쌀 목표가격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한농연 전남연합회, 한여농 전남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를 주제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쌀 목표가격과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농민과 협의해 농산물 값 안정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

산림조합 교류의 날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민)는 20일 장흥에서 막을 내린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에서 전남지역 회원조합·부산울산경남 조합·제주지역 조합 등 3500여 명과 함께 '회원조합 교류의 날' 행사를 가졌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제공〉

농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건폐율 완화 확대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편의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은 20%였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0%까지 완화된다.

이전에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 기업의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이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미·중 고위급협상 스몰딜 합의 등 호재
국내주요기업 3분기 기업 실적 주목
배당보다 대주주 종목별 움직임 관심

미·중 고위급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6~17일 예정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1단계 합의문 서명을 거론했지만 시장은 실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EU(유럽연합)와 영국이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하고 EU측은 합의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다.

지난달 제정된 EU 탈퇴법 '벤 액트'에 따라 존슨 총리는 EU에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증시도 무역협상 합의로 주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 차익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한다.

실적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익 추정치 하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2조9000억원은 전년 4분기(31조7000억원)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주에도 언급했지만 실적부진발표가 나오더라도 국내주식시장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안화 환율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며 외국인 순매수가 유리한 상황인데도 기대했던 순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2100pt 근접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 및 브렉시트 합의 등 주변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현금보다는 조정시 마다 매수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수조정에 대한 부담이 낮고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된 박스권 장세와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익과 배당이 안정적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은 글로벌주식시장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로 저배당국가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12개월 선행배당 수익률은 2.77%로 전세계 주가지수의 배당수익률 2.74%를 상회하고 있고 1% 중반수준이 시중은행 예금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코스피 총수익률은 연평균 3.6%이지만 고배당지수는 연평균 9.0%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실적부진으로 배당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이 기대되기 때문에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투자를 12월 말경에 관심을 갖는데 오히려 연말은 배당보다는 2~3년 전부터 부각되고 있는 대주주지분요건에 따른 종목별 움직임에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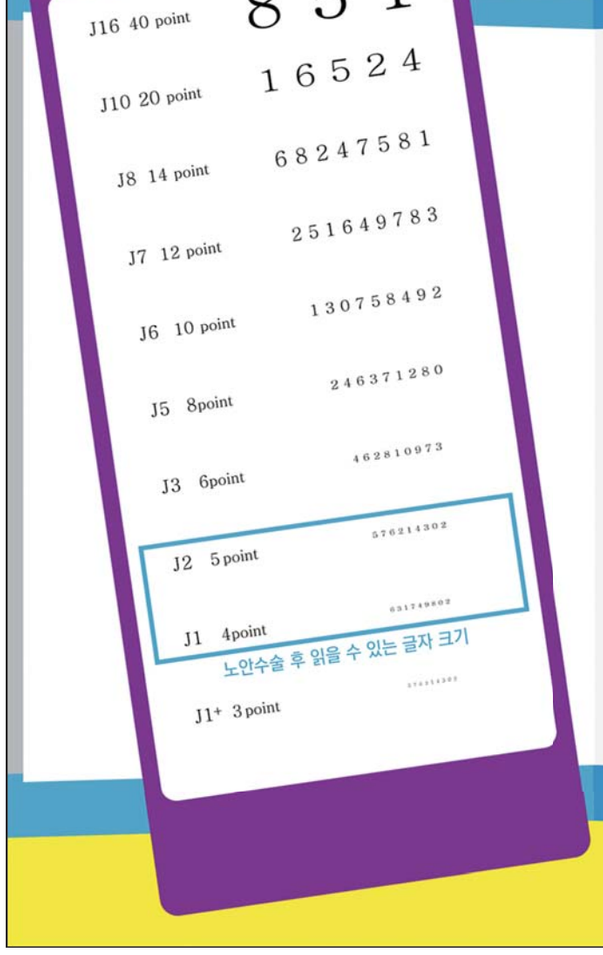
2019년 국내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제약·바이오주 약세로 대상투자자가 감소할 수 있지만 대주주요건(2018년 말 1%또는 15억원에서 2019년 말 1% 또는 10억원, 2020년말 1% 또는 3억원)이 강화되고 있고 대주주로 노출을 기피하는 투자자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